

유럽의 사회적 이동성

2018. 5.18

박명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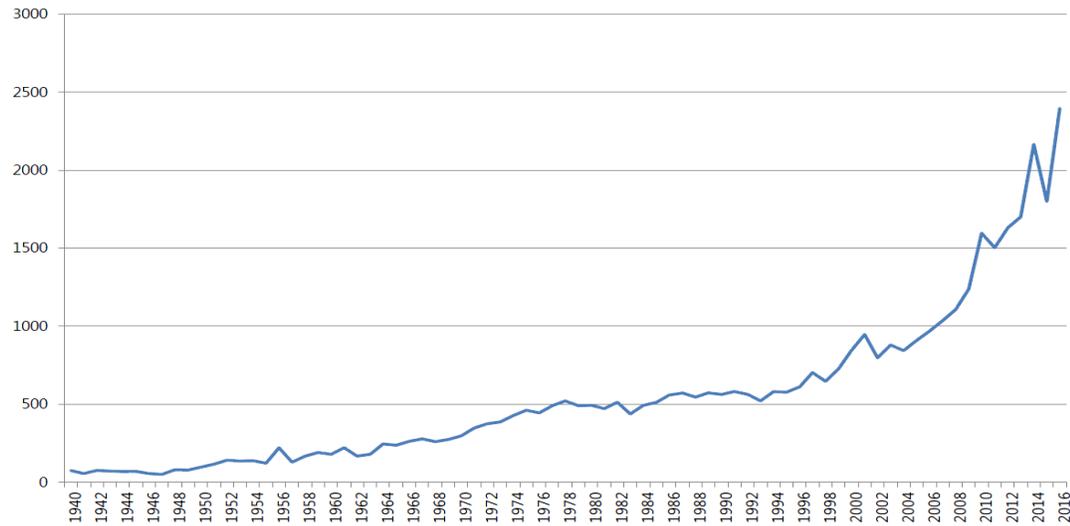
(한국외대 경제학부)

1. 문제의 제기: 1) 연구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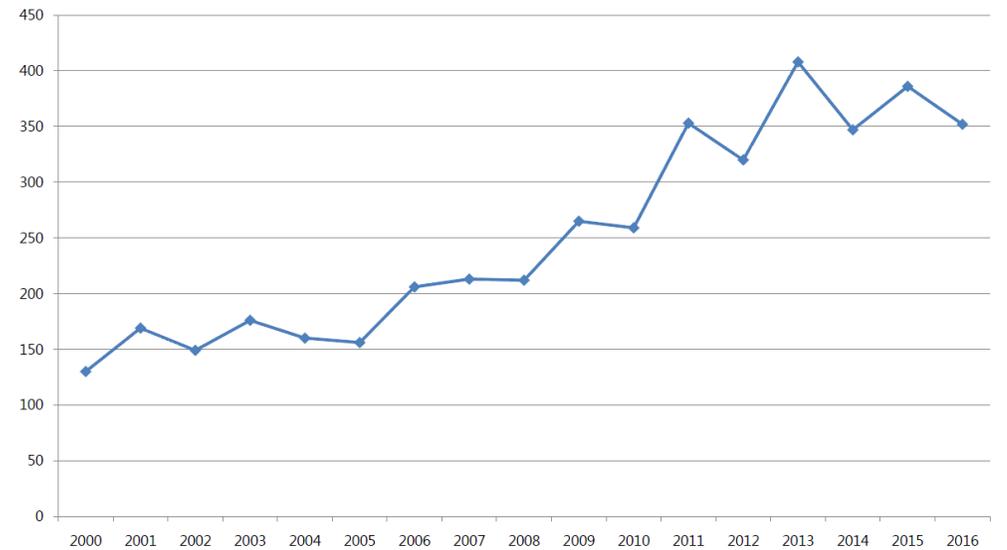
- 전전, 베이비부머, X 세대: 초기조건 균등화, 경제성장 그리고 사회적 상향 이동을 경험
 - Deininger and Squire 1998; Galor et al. 2009, 박명호 2014, Rudolf 2012
- 이후 세대: 초기조건 불평등, 성장 둔화 그리고 사회적 이동성 정체
 - 세대 간 대물림(가정 배경) vs. 개인 노력
- 성과주의와 사회적 이동성
 - Becker: 사회적 이동성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효율성 저하 가능성
- 성장과 사회적 이동성의 조화
 - 사회적 이동성 제고와 성장 잠재력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성장 전략의 모색
 - 혁신과 사회적 이동성을 동시에 감안

1. 문제의 제기: 2) 관심 증대

사회학 분야의 사회적 이동성 논문 수 (1940~2016)



경제학 분야의 사회적 이동성 논문 수 (2000~2016)



2. 유럽 사회적 이동성 현황 (1)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Social mobility in the EU

- 기본 문제의식:
 - 현재의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 비해 사회적 상향 이동가능성의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음
- 증거 기반 분석: ESS
 - 유럽사회서베이(European Social Survey, ESS)를 유럽 24개국을 대상으로 2002년과 2010년 기간 실시
 - 35세에서 75세 1927년생에서 1975년생을 대상
 - 전쟁 세대(1927~46 탄생),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 탄생) 그리고 X 세대(1965~75 탄생)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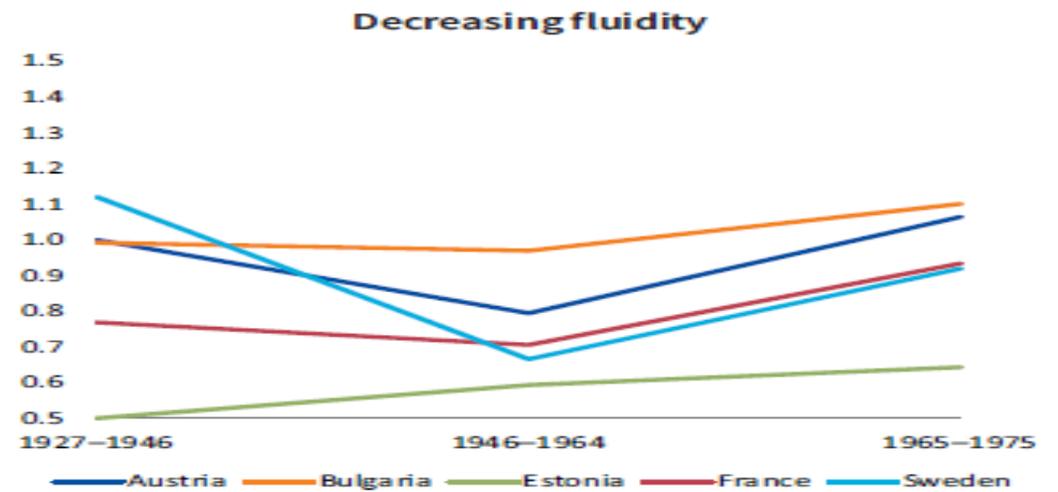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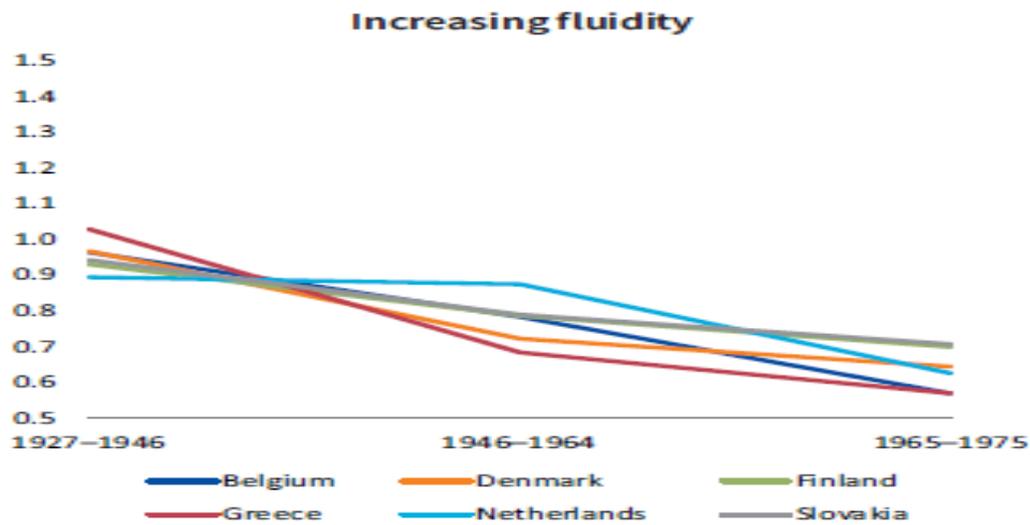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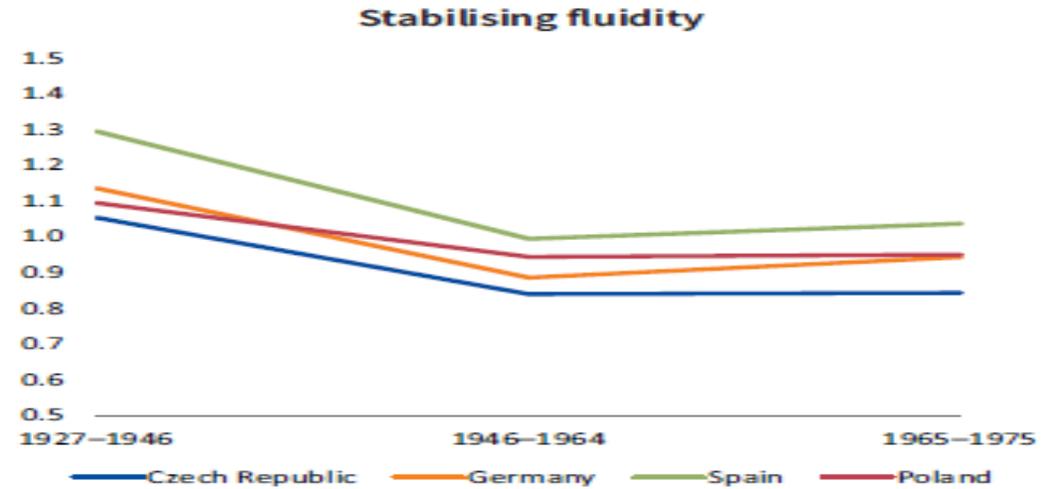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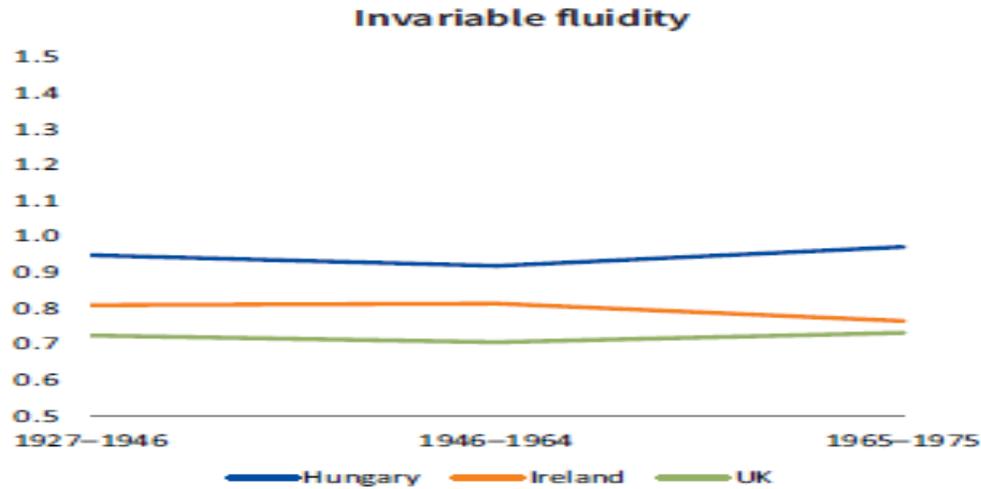
2. 유럽 현황 (2)

유럽사회서베이(ESS) 참여한 국가와 관찰 수

Country (waves)	Observations	Country (waves)	Observations	Country (waves)	Observations
Austria (4)	5,183	Finland (5)	11,976	Netherlands (5)	9,776
Belgium (5)	7,025	France (5)	7,302	Poland (5)	6,929
Bulgaria (3)	5,624	Germany (5)	10,714	Portugal (5)	5,167
Croatia (2)	1,845	Greece (4)	7,026	Slovakia (4)	6,421
Cyprus (3)	2,451	Hungary (5)	6,146	Slovenia (5)	5,228
Czech Republic (4)	6,259	Ireland (5)	5,718	Spain (5)	6,841
Denmark (5)	8,892	Lithuania (2)	1,014	Sweden (5)	6,986
Estonia (4)	7,174	Luxembourg (2)	2,195	Sweden (5)	9,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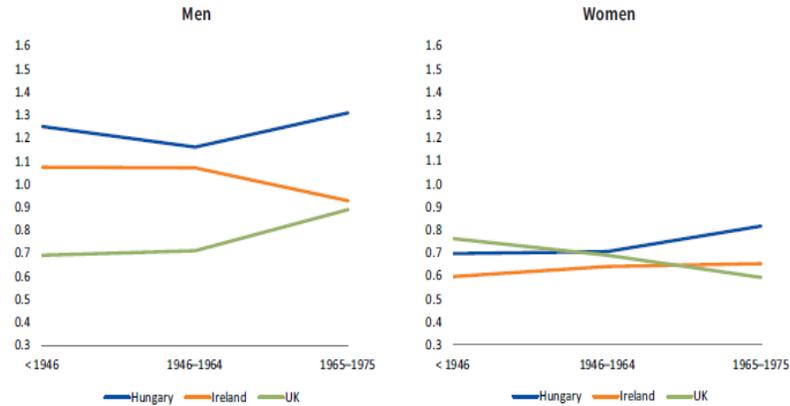
- 유럽 사회에서의 전통적 인식:
 - 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태생보다는 교육이나 경력 등 자신의 능력과 역량이 보다 중요함을 경험
 - 전쟁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는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사회적 상향 이동성을 경험
- 4가지 유형
 - 1) 변화 없음: 영국, 아일랜드
 - 2) 개선 후 안정: 독일, 스페인
 - 3) 지속 개선: 덴마크, 핀란드
 - 4) 개선 후 악화: 프랑스, 스웨덴

3. 유럽 현황(3) : 국가별 세대 간 사회적 이동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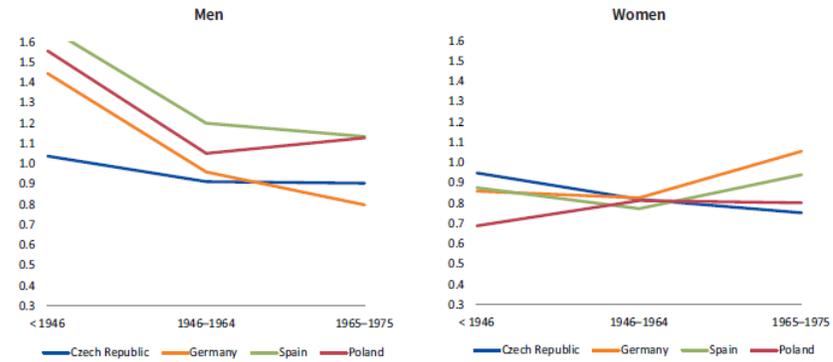


3. 유럽 현황(4) : 남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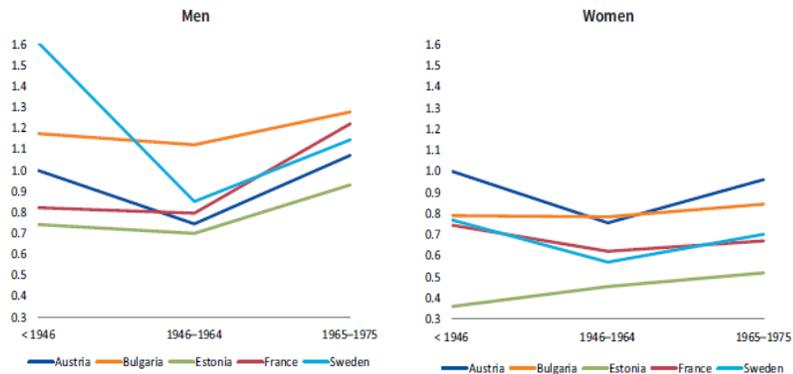
사회적 이동성이 불변한 국가군의 남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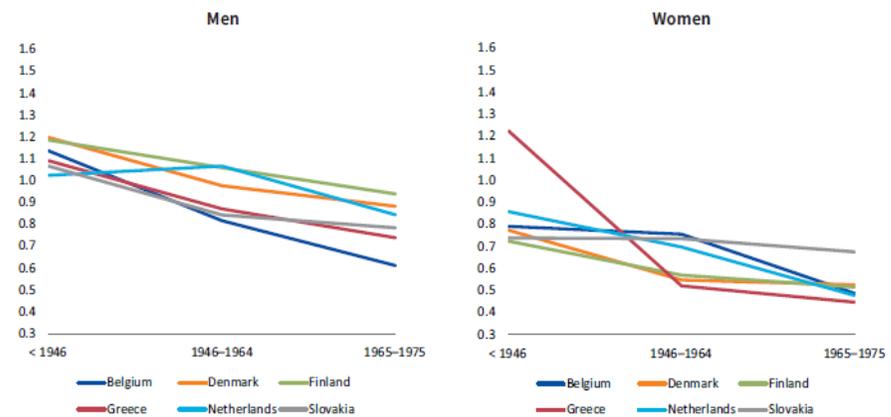
사회적 이동성이 안정적 국가군의 남녀 추이



사회적 이동성이 하락한 국가군의 남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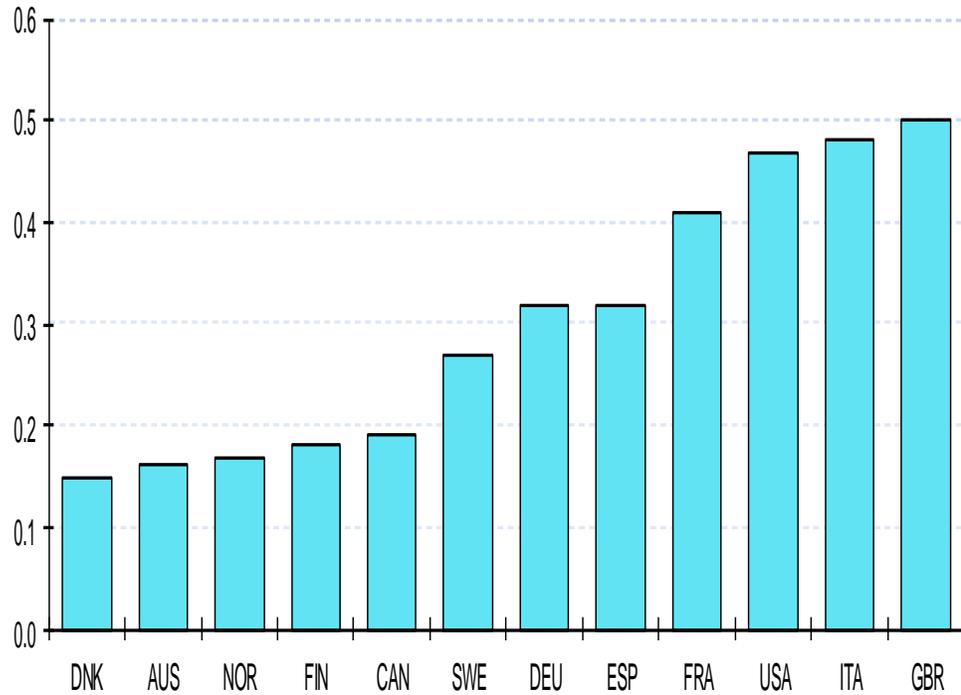


사회적 이동성이 개선된 국가군의 남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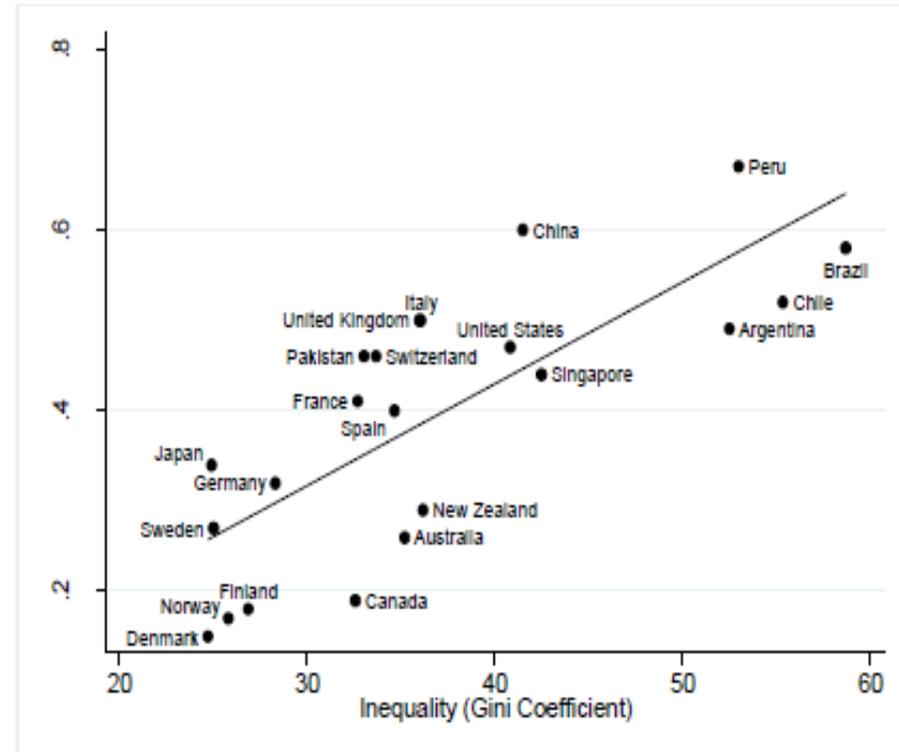
3. 사례 연구: 1) 북구: 소득탄력성, 지니 계수

OECD 12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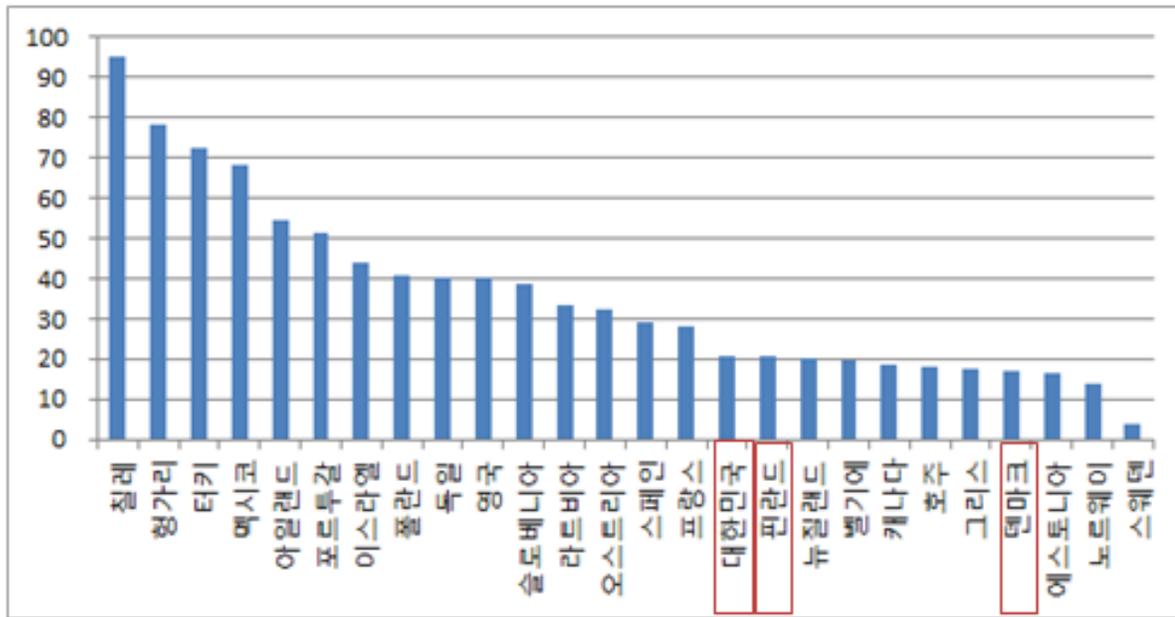
자료: OECD (2008)

국가별 소득불평등도와 세대 간 소득탄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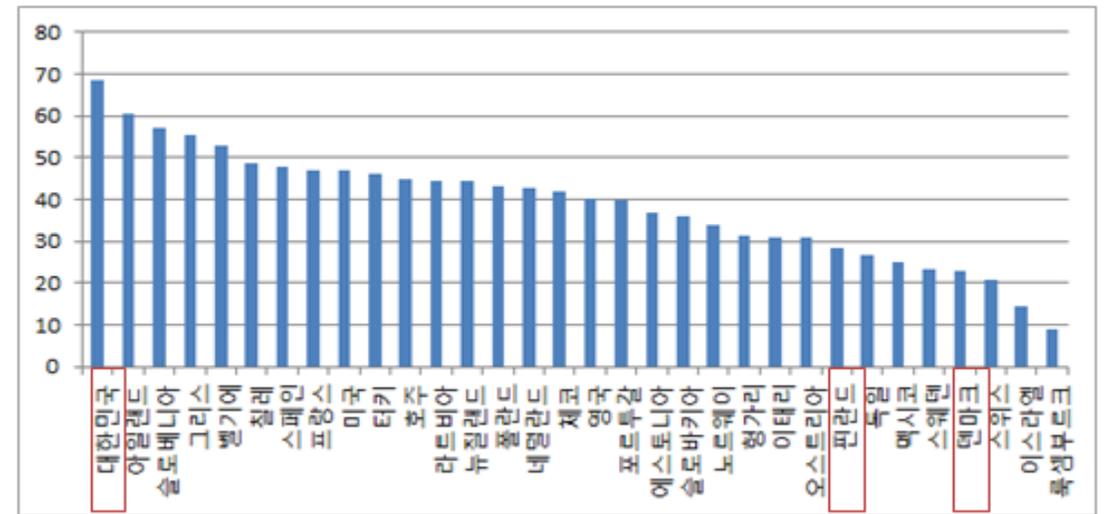
3. 사례 연구: 1) 복구: 대학

[그림 8-17] OECD 국가의 대학교육수익률 (25~34세)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2017)

[그림 8-18] OECD 국가 20세의 대학등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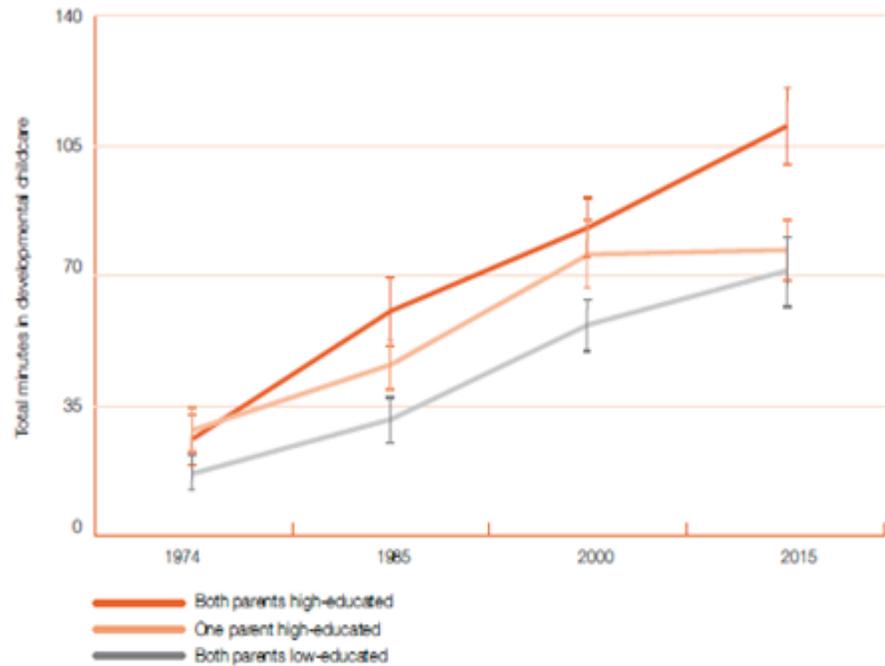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2017)

3. 사례 연구: 2) 영국: 계급 사회에 대한 우려

- 1990년 존 메이저 총리가 계급 없는 영국 사회를 만들기 이후 모든 총리가 사회적 이동성 깊은 관심 표명(현 주장 포함)
- 영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5개의 출생 코호트
 - 1946년, 1958년, 1970년, 1991년, 2000년생 7만 명이 연구대상
- 2010년 Life Chances Act 근거로 사회적이동성위원회(Social Mobility Commission)을 설립 운영
- 사회적 이동성 관련 무료급식과 나머지 구분해서 분석

3. 사례 연구: 2) 영국: 어린 시절

[그림 1-11] 1975~2015 기간 5세 이하 어린이에게 부모가 양육에 드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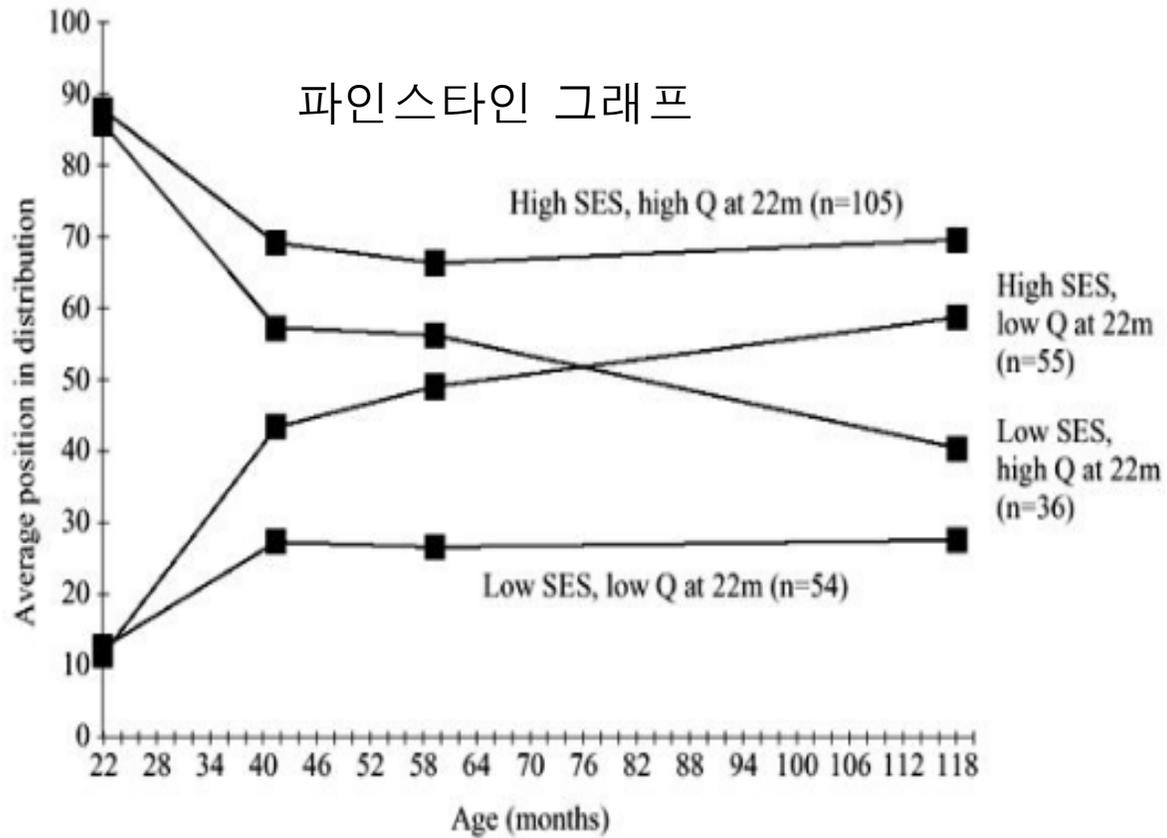
자료: SMC (2016)

[그림 10] 2007년 이후 5세에 양호한 수준에 이른 어린이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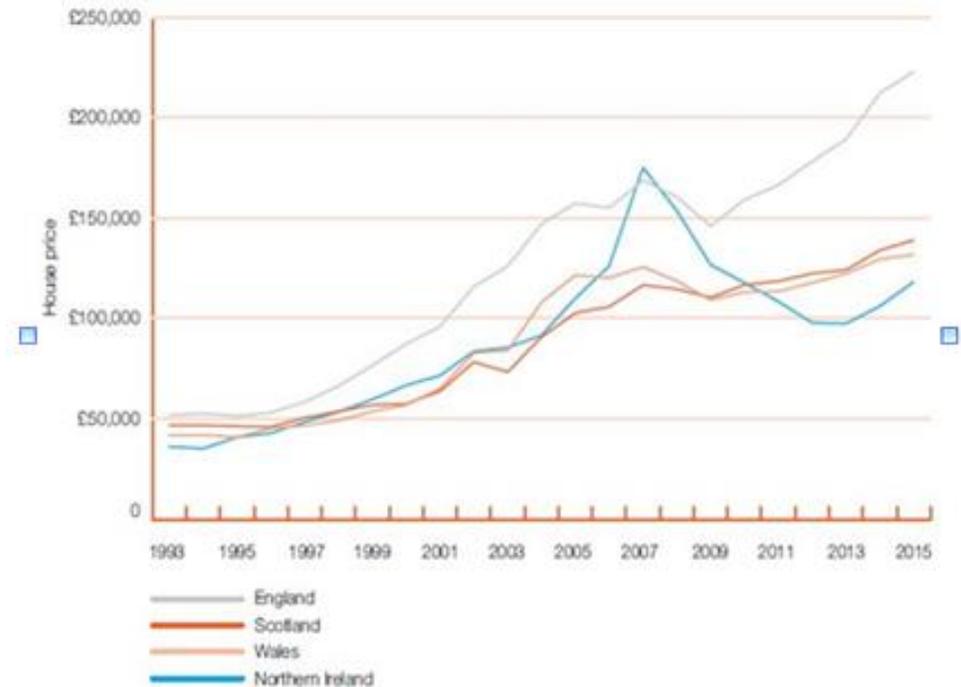


자료: SMC (2016)

3. 사례 연구: 2) 영국: Feinstein grap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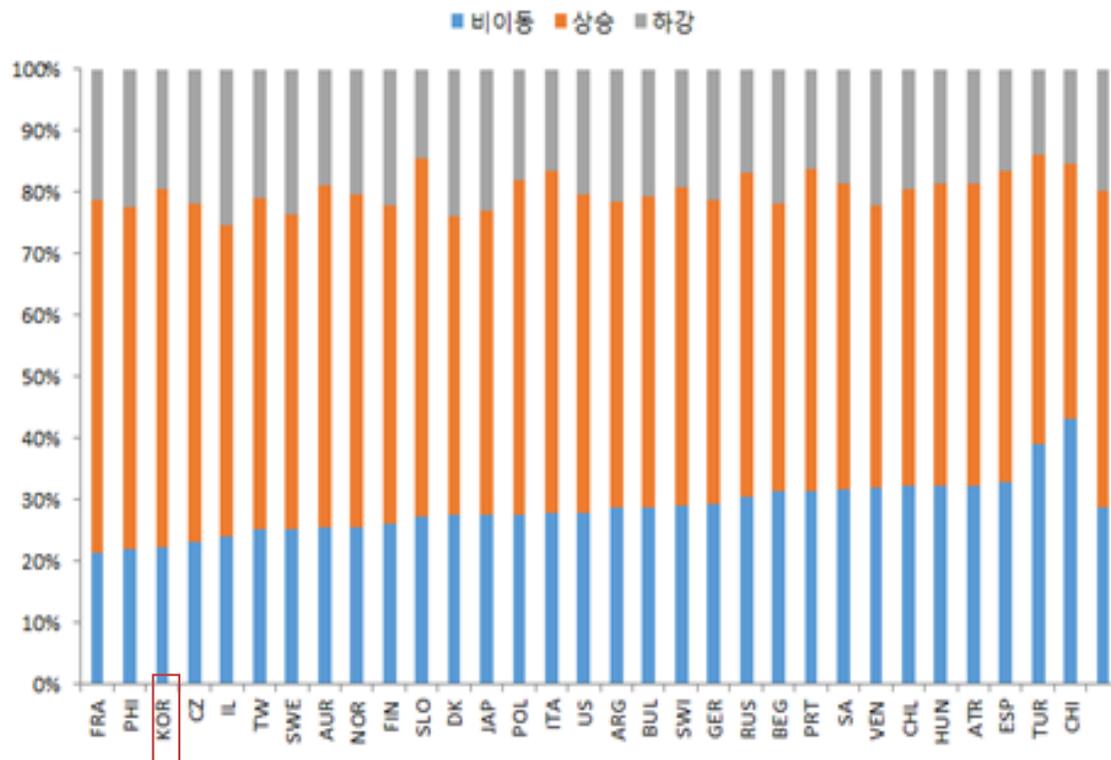
[그림 12] 주택 첫 구매자의 주택 가격: 1993~2015



자료: SMC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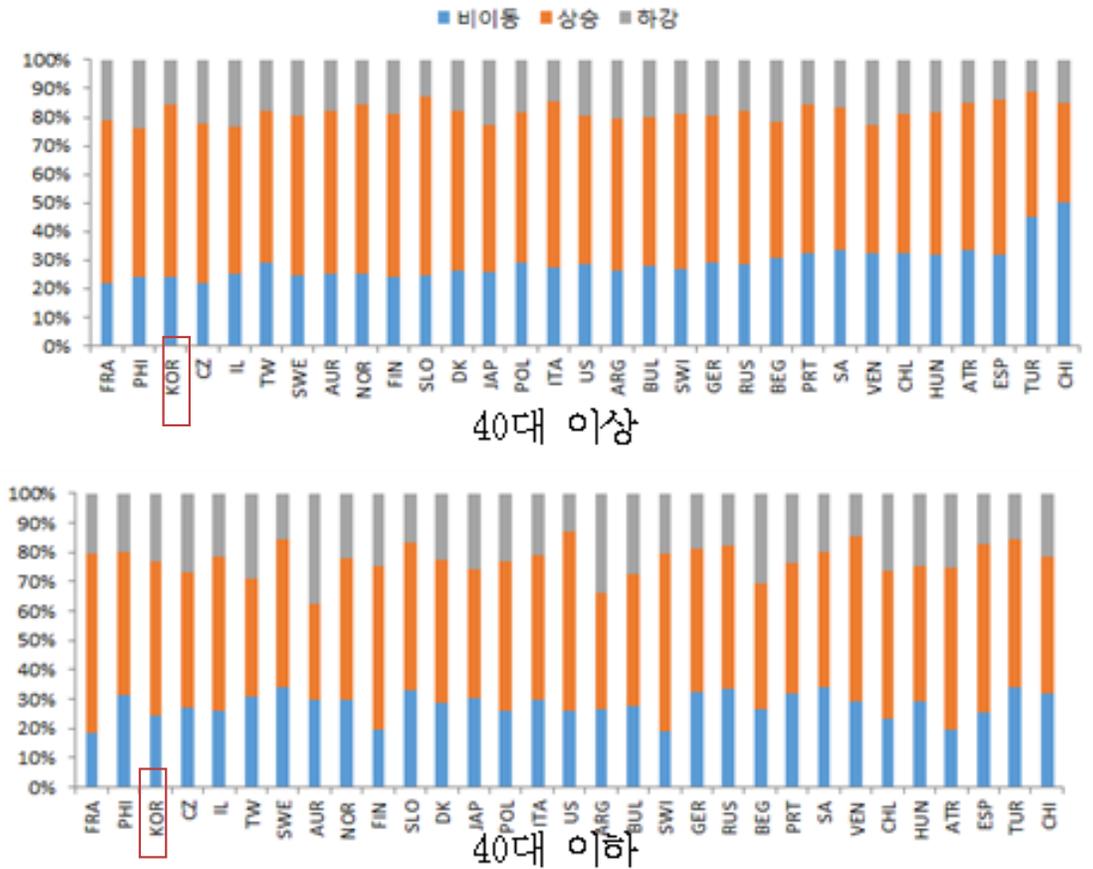
3. 사례연구: 참고 한국: 국제비교, 연령별

[그림 2-4] 사회적 이동성의 국제비교: 한국 포함



자료: ISSP,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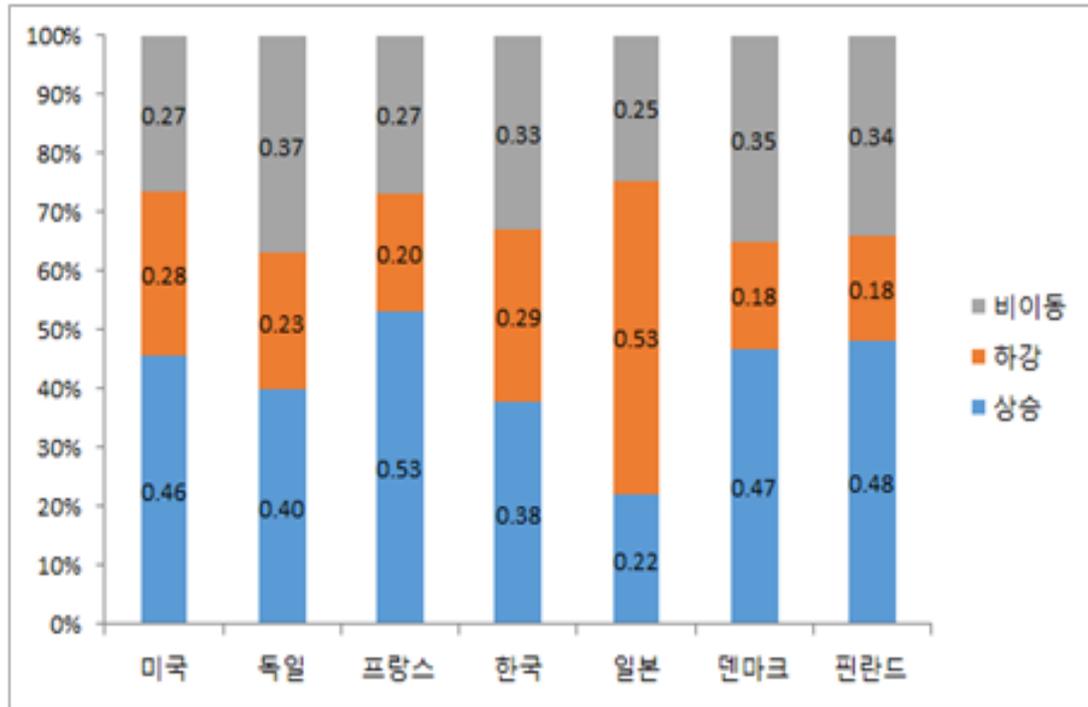
[그림 2-5] 사회적 이동성의 국제비교: 연령 구분 후



자료: ISSP,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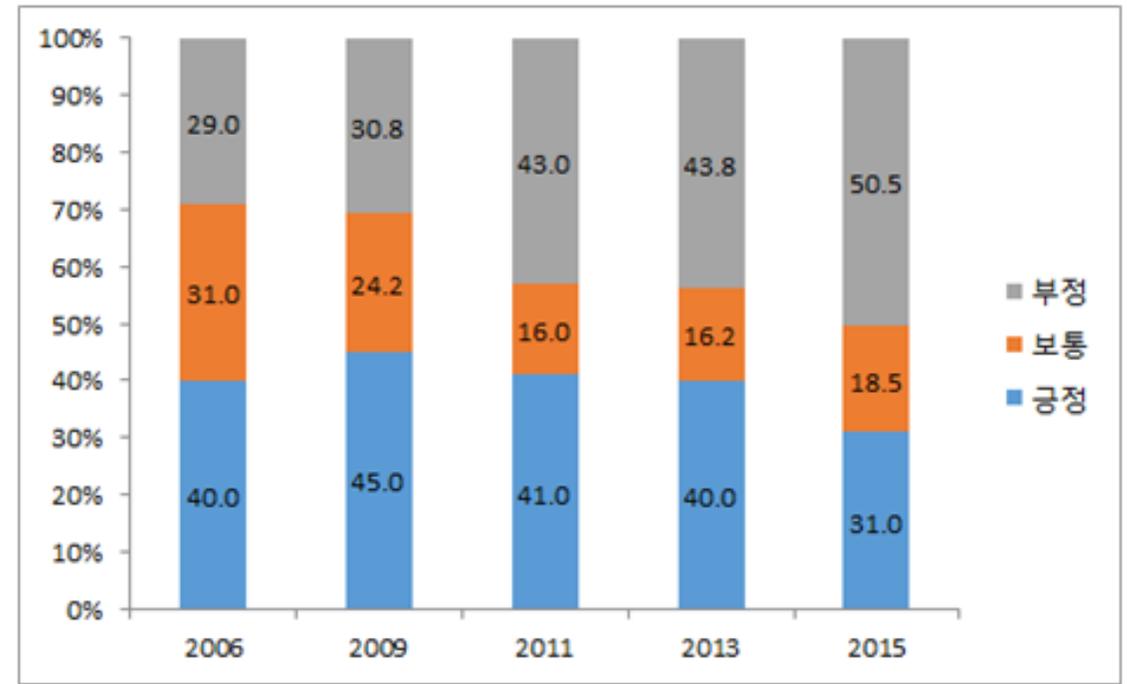
3. 사례연구: 참고 한국: 인식

[그림 2-8] 본인 이동 경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



자료: ISSP,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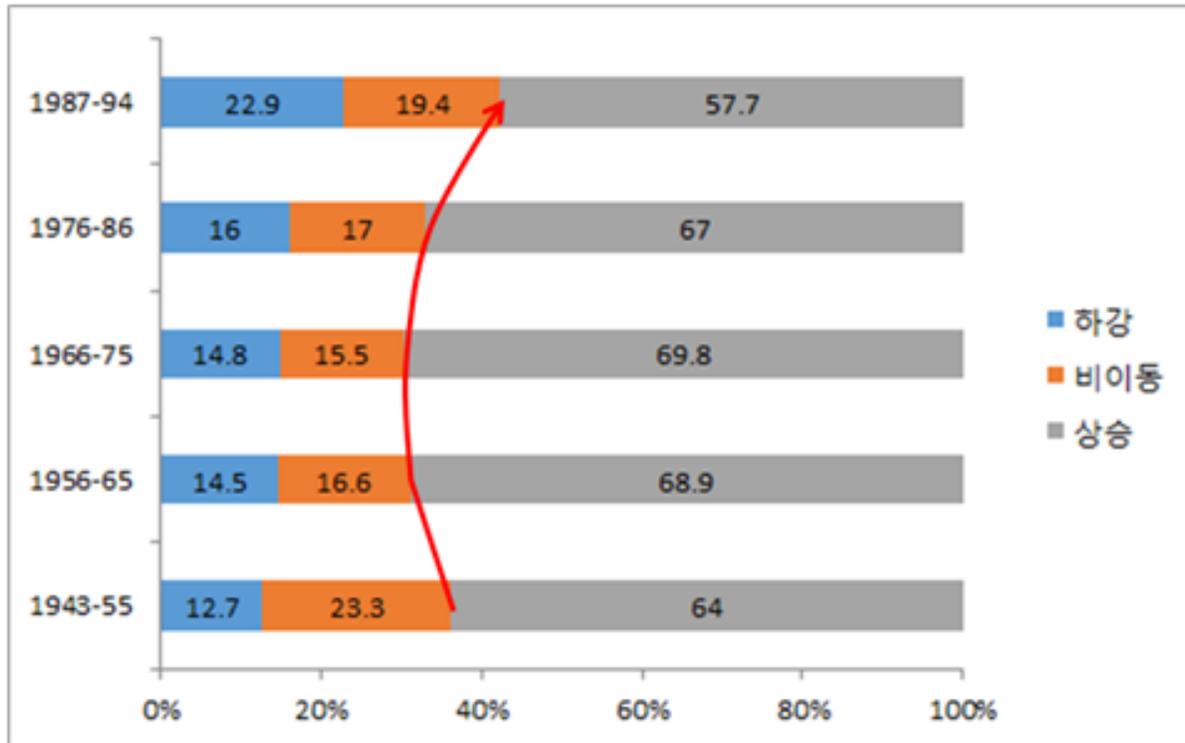
[그림 2-9] 세대간 이동 기회에 대한 인식의 추세



자료: 사회조사, 통계청 간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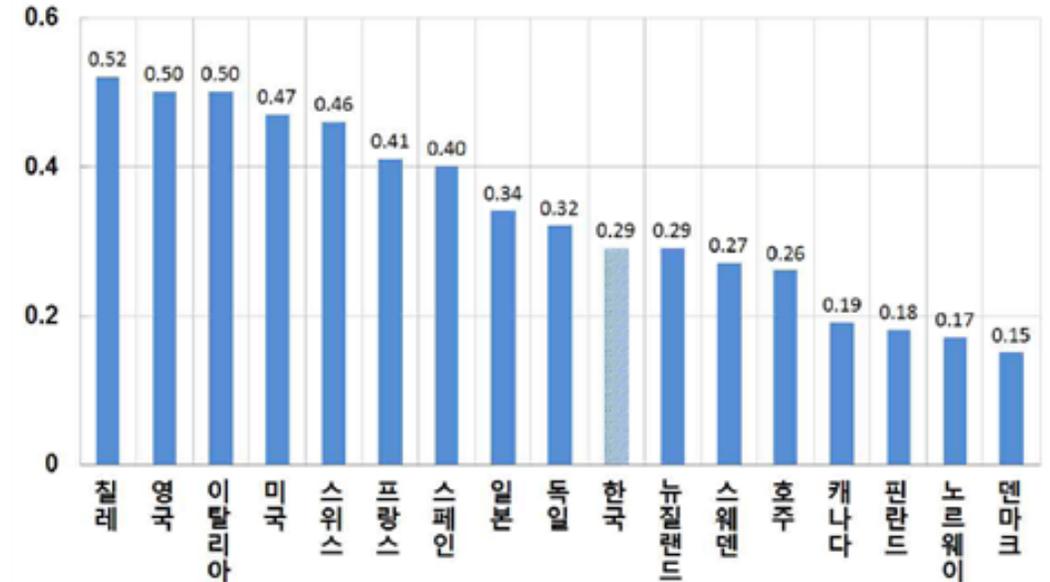
3. 사례연구: 참고 한국: 시계열 및 소득이동성

[그림 2-7] 한국의 세대별 사회적 이동성의 비교



자료: 교육과 사회이동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08~2010) 및 청년패널조사(한국고용정보원,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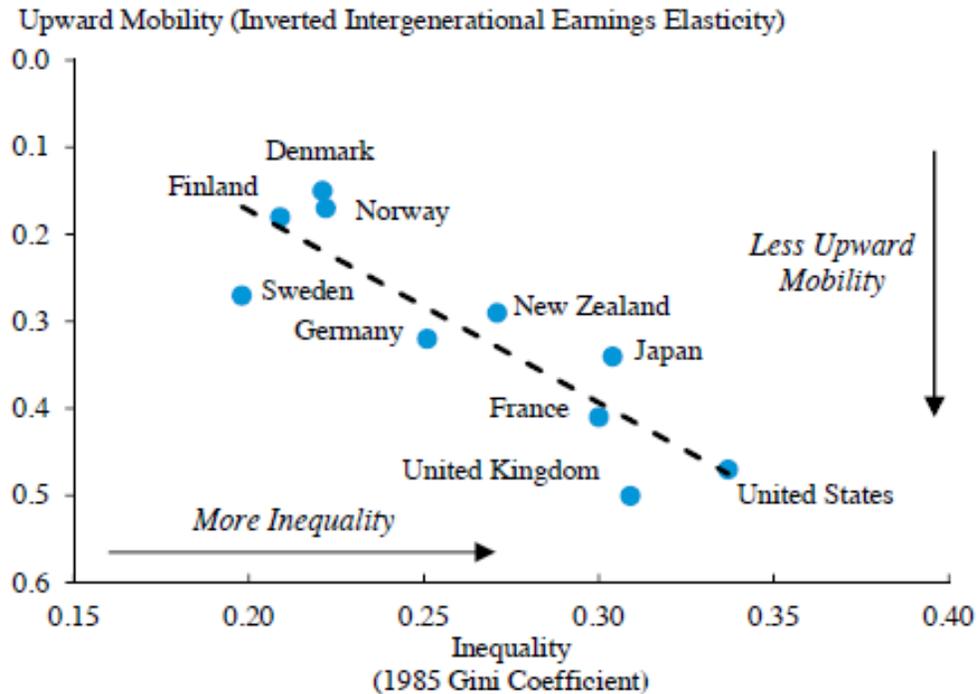
[그림 2-6] 소득 이동성의 국제비교: 한국 포함



출처: 이진영(2016)

3. 사례연구: 참고 미국: 개츠비 곡선

위대한 개츠비 곡선



- 낮은 세대 간 소득 이동성 vs 높은 노동시장 탄력성
- 미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과 더불어 많은 증거 기반 연구
 - CEA(2016)가 작성한 대통령 보고서에서도 심층 연구 수행
 - Chetty 교수 등 미국 심화연구 통해 지역 간 격차 문제 제기
 - 유년기 지원의 효과성 검증
 - 노동시장 진입 조건이 노동시장 퇴출 때 점차 큰 영향력 행사: Carr and Wiemers(2016)

4. 사회적 이동성의 주요 쟁점

주요쟁점

- 1) 소득 불평등
- 2) 공공서비스 접근성
- 3) 교육 불평등: 조기 선발, 학교 선택의 부정적 효과
- 4) 빈곤의 대물림
- 5) 성 불평등
- 6) 이민자 통합
- 7) 연고주의와 부패
- 8) 지역 격차

4. 논의 사항

- 1) 산업화와 후기 산업화 그리고 사회적 이동성
 -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
 -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 사회적 이동성에서 어떤 변화 올지??
- 2) 제도적 기반: 노동시장, 교육, 사회복지
 - 북구 모형 대 영미형
 - 한국의 선택은?
- 3) 초기 조건 균등화
 - 초기 조건 균등화 가정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음
- 4) 성과주의와 사회적 이동성
 - 대물림은 경제활동의 중요한 인센티브
- 5) 혁신과 사회적 이동성
 - 누가 혁신을 주도하는지가 관건: incumbent vs. emerging

- 끝